

사회

운전자들 안전거리 너무 안지킨다

주말 무진로서 9중 추돌 1명 사망 7명 부상

교통혼잡 주범 되기도 장마기간 1.5배 유지

‘안전거리’(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이 대형 교통사고를 불러왔다.

광주 무진로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역회관 앞 무진로(편도 3차로) 3차선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달리던 박모(40·대전시)씨의 4.5t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김모(46·광주시)씨의 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추돌로 5t 화물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무쏘·SM5·스타렉스·프레지오·마티즈 등 총 9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당시 차량들은 대부분 정차 간격이 1~2m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5t 화물차 운전자 김씨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고 속도 80km/h인 사고 지점은 광산구 우산동 방면에서 무진로로 진

입 구간으로 상시적으로 병목 현상을 보이는 곳이다. 피해 차량들은 광산구 우산동 방면에서 무진로로 진입한 뒤 유덕 IC방향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이날 사고로 목포와 나주 등에서 광주로 진입하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숨진 박씨 차량의 급제동(스키드마크) 흔적이 없는 점과 핸들 방향이 정 위치로 꺾여 있지 않은 점을 미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주행 상태에서 정지 페달을 밟을 경우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는 시속 100km 정도 주행시 70~100m, 80km주행시 50m 이상, 60km 주행시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통문화에는 안전거리란 개념이 거의 없다. 안전띠 매기와 신호 지키기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고가 강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에서 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피해 운전자들이 차량 상태를 살피고 있다. (광산소방서 제공)

있다. 하지만 조금씩 운행하는 습관과 끼어들기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안전거리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 주행중 갑자기 정지 구간이 이를 경우,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연일 일어난다.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4거리에 이르는 도로와 백화점에서 농성동이 나 임동 등의 방면 도로, 이들 4개 방면 도로는 모두 8차선이 넘는 대로임에도 차량들이 대부분 바짝 붙어 운행하고 있어 위험스러운 뿐만 아니라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운전행태는 사고가 발생시 4중 이상의 다중 추돌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돌발기류가 이어져 교차로 상습 정체 등 교통 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돌발상황 시 급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장마기간에는 빗길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점을 감안해 차가 거리를 일반 기준보다 1.5배 이상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도박 때문에” 아버지 살해

친구와 짜고 범행... 보성경찰 영장 신청

보성경찰은 3일 도박 밀천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이모(23)씨와 이씨의 친구 송모(23)씨를 존속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0일 새벽 4시께 보성군 보성읍 한 모텔 인근 정자에서 이모(4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둔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교 동창인 이씨와 송씨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하다가 각각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도박 밀천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 뺑뺑이 판매상이었던 송진 이씨는 광주와 보성 등에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

유하고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됐다.

아들 이씨와 송씨는 지난 29일 광주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뒤 보성에 도착했으며, 송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이씨의 아버지와 보성 읍내 모 마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한 모텔 인근 정자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아들 이씨는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와 송씨의 뒤를 몰래 따라다녔으며, 이들은 아버지 이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해된 이씨의 하의에서 나온 마트 영수증과 마트 안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 분석을 통해 이씨와 송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씨를 사망에 관여한 직접적인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만큼 대질심문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가려낼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나원침 (8349) 김중두



순천 아파트 사업 관련

3억 챙긴 방송기자 구속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1일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추진한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광주일보 7월 1일 6면)로 모 방송 여수계열사 양모 기자를 구속했다.

이날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된 피의자신문)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3월께 왕지동 아파트 사업의 분양승인과 관련해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편의를 봐주겠다고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투신 실종자 “실연 억울” 해명쳐 나와

○지난 27일 목포 압해대교에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20대 남성(광주일보 6월 29일 6면)이 나흘만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해경의 행적 조사 끝에 확인.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27일 밤 10시7분께 목포와 신안을 잇는 압해대교(총길이 3563m) 중간 지점에서 투신한 뒤 해안철도로 나왔다.

○강씨는 해경에서 “2년간 사귀던 여자 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죽기로 마음먹고 압해대교에서 뛰어내렸지만,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엄쳐 나온 뒤 PC방 등에서 생활하다 형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체력훈련 다지는 인명 구조원

여름철을 맞아 2일 오후 장성군 삼서면 상무수영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 인명 구조원들이 체력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류 조작해 주고 장비업체서 뒤통수

광주시청 양궁감독 등 영장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학교와 실업팀의 양궁 감독과 코치, 교장 등이 장비제조업체로부터 뒤통수를 받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정청은 3일 양궁 장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서류를 꾸며주는 수법으로 예산을 빼돌린 광주시청 양

궁팀 감독 박모(46)씨와 전남체육고 교사 박모(50)씨 등 6명에 대해 뇌물 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남 모 중학교 교장 김모(57)씨와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배모(62)씨 등 10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말레이시아 여류 대학생 5일만에 풀려나 귀국

5·18 기념재단 국제인턴으로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여대생이 반정부 시위를 참관하다 현지 경찰에 억류된지 5일 만에 귀국했다.

3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제인턴 송모(여·24·광주 모 대학교 4년)씨는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불법 시위자를 조사하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닷새 만인 지난 1일 추방당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가석방 날 교도소 출소동기 노역 대금 훔친 20대 체포

순천경찰은 3일 교도소 동기의 돈을 훔쳐 달아난 조모(28)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께 순천시 장천동 A노래방에서 교도소 동기 이모(56)씨의 노역 대금 350만 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석방된 조씨는 이날 함께 출소한 이씨가 교도소에서 일해 번 돈 3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시게 한 뒤 돈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동부경찰, 들 구속영장

광주동부경찰은 3일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뒤 통장을 빼앗아 돈을 인출한 서모(42)씨와 김모(38)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께 박모(지적장애 2급·25)씨를 광주시 동구 한 모텔로 데려

지적장애인 감금 폭행 돈 빼앗아

간 뒤 3일 동안 폭행·감금하고, 현금 180여만원이 든 통장을 빼앗아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의 명의를 이용,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 등은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혼자 지나가던 박씨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냉장고 부품공장 불 8억6천만원 피해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장성군 황룡면 모 냉장고 부품산업에서 불이 나 건물 4개 동 8400㎡와 공장 안에 있던 각종 부품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토요 휴무여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